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5. Vol. 88 No.1 pp. 83~115

##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성지혜



##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성지혜\*\*

### 초 록

이 연구는 여성노인의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성 내부에서도 취약집단으로 구분되는 결혼이주여성이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연구를 위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1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은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노년기 빈곤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irony)하게도 결혼이주여성은 여유로운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았는데, 특히 자녀에 대한 기대와 국가의 사회보장에 의존하여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삶이 힘겹고,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에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여성노인 빈곤이 우려됨에 따라 긴 노년을 대비한 준비가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조차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민이 갖는 한계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이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와 노후준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상담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생활설계를 지원하고, 노후생활을 위한 자립의지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결혼이주여성의 노년기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머잖은 시간 내에 심각한 결혼이주여성노인 빈곤화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여성노인, 여성의 빈곤화, 노후준비, 노후설계

\* 본 논문은 2014년도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 재)대구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jihyeai@dwff.or.kr)

## I. 문제제기

우리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60세를 겨우 넘었으나 최근에는 85세를 넘어서고 있다. 100세 시대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서둘러 노후를 준비하라고 강조하기까지 한다. 각종 언론은 ‘올바른 노후대비’, ‘현명한 노후대비’, ‘여유로운 노후준비 전략’ 등을 내세우며 노후설계를 위한 ‘새로운 트렌드’를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트렌드로 제안되고 있는 것들이 그다지 새롭게 와 닿지 않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라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노후를 지탱해 줄 ‘건강’과 ‘경제적’ 조건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건강과 경제적 조건이 노년기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삼식·이선희·배혜원(2013)은 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대별 노후준비 중요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순으로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만큼 노후생활을 대비한 경제적인 준비는 필요한 것이다. 길어진 노년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은 여성과 남성, 청년과 중년을 가리지 않고 사회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이삼식 외(2013)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재무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노후대비 중에서 경제적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이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노후준비가 OECD 하위권이며, 우리사회의 노년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년빈곤 가운데 여성노인의 빈곤은 남성노인의 빈곤보다 더욱 걱정스럽다. 장미혜 외(2013)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의 빈곤율(45.9%)이 남성노인(40.1%)보다 5%p 이상 높았으며, 빈곤의 강도를 나타내는 빈곤갭(poverty gap)비율도 여성노인의 상대적 빈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상대적으로 더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연금 등의 혜택은 남성보다 적어 불안감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인의 빈곤은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장미혜 외(2013)는 임신·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경제활동기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여성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므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욱 심각한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주장하였다.

여성은 물론이고 여성노인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삶의 경험은 여성노인을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생애주기에서 노인층은 젊은층보다 빈곤에 더 취약하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빈곤에 더 취약한 환경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여성노인은 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지만, 여성노인 중에서 더욱 취약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들의 노년기 빈곤은 과연 어떠한가?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여성 내부에서 좀 더 취약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다문화가족의 평균소득은 일반가구보다 낮은 상태이고, 국가 간 이주는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지지기반을 부족하게 만들어 다양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의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의 연령차<sup>1)</sup>가 한국인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에 가족원의 수입이 조기에 끊길 우려가 있다. 공적연금 혜택이 적고,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결혼이주여성을 더욱 열악한 위치로 몰아넣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가장 취약한 집단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들의 노년기 삶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을까? 만약 결혼이주여성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우리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왜냐하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sup>2)</sup> 결과 만40세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이 37.2%에

1) '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4.11.19.발표)'에 의하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에서 10세 이상 연령차가 있는 비율이 55.5%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간의 혼인에서는 3.2%에 불과함.

2)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2.26.발표)'의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분포는 만 24세 이하 12.8%, 만 25~29세 18.4%, 만 30~34세 16.9%, 만 35~39세 14.6%, 만 40~49세 23.3%, 만 50세 이상 13.9%로 나타남.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제적 조건에 한정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꿈꾸는 노후생활은 어떠한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이 많다는 것은 혼인의 조건 속에 경제적 윤택함의 추구도 상존해 있음을 입증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보다 나은 일자리,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를 선택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역시 인종차별, 젠더차별을 무릅쓰고 보다 나은 삶의 정착지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과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따른 실망과 절망의 간극도 커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꿈꾸는 보다 나은 삶은 미래형으로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내부에서도 상대적 취약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인 차원에서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노년기 삶의 예측이 가능하고,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비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Ⅱ. 여성노인의 빈곤과 결혼이주여성

### 1. 여성의 빈곤화

빈곤은 역사적인 흐름이나 사회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여성의 삶의 궤적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여성의 빈곤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젠더, 계급, 인종, 종교, 연령 등 다양한 차별의 기준과 결합하면서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최기숙, 2014; 황수연, 2014; 소현숙, 2014; 손혜민, 2014; 공임순, 2014).

‘여성의 빈곤화(feminization of poverty)’는 빈곤여성의 증가현상을 통칭하는 것으로(박영란 외, 2003), 미국의 사회학자(Diana Pearce, 1978)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실증적이고 다양한 연구물이 축적

되고 있다. Pearce는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임을 밝혀냈고, 빈곤에 특히 취약한 집단은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이라 주장하였다(박영란 외, 2003 재인용).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이 빈곤에 취약한 원인은 사회전반에 걸친 직업의 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저임금구조, 노동시장의 성 차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박영란·황정임(2002)도 한국사회 여성빈곤 현상은 가부장적 가족체계와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성 차별 그리고 이원화된 가부장적 복지체계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의 빈곤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취약성과 기회 접근에 대한 제한 등 삶의 모습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성 차별적 속성들이 여성의 삶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결과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여성빈곤이 우려되면서 다양한 실증적인 분석 및 배려와 지원 체계를 강조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허미영, 2006; 김영란, 2004, 2006; 석재은, 2004, 여지영, 2003; 유정원, 2000).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원인으로 허미영(2006)은 성별분업, 학력, 돌봄 역할 수행 등의 사회적 차별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중첩된 경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고정갑희(2005)는 여성적 빈곤<sup>3)</sup>을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기저에서 분석하였다. 계급적으로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성별에 따른 저임금노동, 시간제노동의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자본에 복속하면서 여성의 빈곤이 더욱 심화되거나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허성우(2008)는 아시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필리핀에서도 계급, 지역, 인종의 사회적 분단선으로 형성된 가난한 여성들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적 빈곤을 유지·재생산하도록 허용하는 지배세력의 사회경제적 독점 상황을 비판하였다. 허성우(2008)는 여성적 빈곤문제를 다름에 있어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우리 사회가 여성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 고정갑희(2005)는 '여성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여자'와 '여성'을 구분하였는데, 여자는 개인의 차원에서, 여성은 여자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여성적 빈곤이란 여자들이 겪는 빈곤을 의미하며 여성이 점점 더 빈곤해지는 여성의 빈곤화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적 빈곤이란 여자들이 빈곤을 넘어서서 집단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이 처한 빈곤의 성격과 자본의 남성중심성 그리고 가부장적 성격을 드러내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주변화된 여성들의 배제를 지속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였다.

## 2. 여성노인의 빈곤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긴 노년기 삶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뉴스보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년기 삶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양한 자기기준이 있겠으나 대체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의 바탕 위에 그럴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소외집단으로 분류되어온 여성은 여성과 노인이라는 두 범주에 포함되면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학문적 관심의 대상까지 되고 있다(곽삼근·박성희·김은경, 2008).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성이면서 노인은 그 속에서도 빈곤에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구분된다(김수정·김정석, 2011).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금, 그 중심에 취약한 여성노인이 거대한 범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저학력, 독신가구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김수정·김정석, 2011). 우리나라의 인구 유형별 빈곤율은 노인, 1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한부모 가구 순으로 빈곤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하고 있다(임완섭, 2015). 특히 한국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와 함께, 여성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sup>4)</sup>되어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미·김태완(2014)은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조사를 통해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노인의 빈곤화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사회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였다.

4) 알리안츠그룹이 2014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년 여성들의 빈곤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한국 여성(65세 이상)의 빈곤율은 47.2%로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47.2%가 중위 가계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결혼감소와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노년기 여성들의 빈곤을 야기하는 요소로 분석하였다(매일경제, 2014.3.10.자, <http://news.mk.co.kr>).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성이면서 노인인 여성노인이 빈곤에 가장 취약하다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여성노인이 빈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 및 가족 내 돌봄 노동을 담당함으로써 소득과 관련된 누적된 불이익을 경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최희경, 2005). 최희경(2005)은 여성노인의 빈곤위험을 낮추는데 있어 얼마나 오랜 기간 일을 해 왔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와 성 차별적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주장하였다.

여성노인이 빈곤할 수밖에 없고,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박기남(2004)은 성별에 따라 생애주기별 삶의 조건이 다른 이유가 노후생활의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즉, 여성은 처음부터 노년의 삶에 기대하지 않았기에 낮은 수준에서도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여성의 노년기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다. 곽삼근 외(2008)는 여성의 노년기가 빈곤과 우울 등의 문제를 가진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시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오히려 여성노인을 억압하던 가부장적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면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기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노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시킬 여유와 의지가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노인의 삶을 지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여성노인이 제2의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빈곤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여성은 성별 기대 수명의 차이와 부부간 연령 차이로 인해 적어도 10년 이상은 홀로 생활을 감당해야한다.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더욱 크기 때문에 가구 수입이 더 빨리 끊길 수밖에 없으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인적 지지기반도 부족한데 그 상태에서 적어도 20년 이상은 홀로 살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노년은 어떠할까? 결혼이주 여성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3. 결혼이주여성의 빈곤화

결혼이주여성의 국가 간 이주는 여성 개인의 삶을 주변인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든다. 김태원(2011)은 주변인(marginal man)의 개념을 ‘한 사회나 집단의 중심적 가치에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두 사회 또는 문화적 집단에서 어느 사회에도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선주민여성과의 차이로 드러날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함으로써 그 내부에서도 국적이나 인종에 의해서 열화 되고 있다. 고정갑희(2005)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오면서 한국여성과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그들 사이에서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은 1980년대 국가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등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1990년 초반에는 매년 3천 명 정도의 외국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2005년 30,719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차츰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마다 2만 명 정도의 외국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누적통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결혼이주여성은 226,084명에 이른다. 또한 한국의 전체 결혼 중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7%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여성의 출신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1993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은 중국(59.5%), 일본(26.6%), 미국(7.4%)의 순으로 많았으나, 2003년에는 중국(71.2%), 베트남(7.5%), 필리핀(5.0%), 일본(4.5%), 미국(1.7%), 우즈베키스탄(1.7%) 등으로 중국과 베트남이 크게 증가한데 반해, 일본과 미국은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중국(33.1%), 베트남(31.5%), 필리핀(9.2%), 캄보디아(4.2%), 미국(3.5%), 태국(1.6%), 우즈베키스탄(1.5%), 대만(1.4%) 등의 순서로 나타나 국적이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 중 중국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베트남은 대폭 증가하였다.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이 다양화되면서 언어, 문화, 학력, 생활습관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데 한계가 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활풍습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양상도 다를 것이므로 정책적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출신국가에 따른 여성들의 다양화 속에서도 공통분모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혼인연령도 낮고 남편과의 연령 차이도 크며, 교육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학력수준이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3%, 중학교 졸업 23.5%, 고등학교 졸업 45.6%, 대학교 졸업 이상 20.5%로 나타나 한국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은아(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최근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에서 선진경제국가로 이주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가난을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혼이주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은아(2013)는 가난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편견을 갖기보다는 이들이 본국에서 그랬던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력과 경제수준이 결혼이주여성의 노년기 행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학력수준이 생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자명하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선택 그리고 임금수준을 결정짓는 합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력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은 임금수준이 낮은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노년기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할 것인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처럼 학력 자본이 적고, 국가 간 이주로 인해 인적 지지기반이 약하며, 언어소통의

장애마저 안고 있어 이중의 열악한 위치임을 부정할 수 없다.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용직 비율은 18.9%로 일반여성 7.0%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단순노무직 비율에서도 일반여성이 16.3%인데 비해 결혼이주여성은 29.9%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이 처해있는 고용노동환경을 짐작하게 한다.

정부는 사회통합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기회 제공 및 언어학습,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이는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문화가족의 건강 가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 내부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참여기회도 결혼이주여성 내부의 차이로 인해 수혜의 불평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지혜·이정미(2014)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각종 수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순노동·일용직 취업, 임신·출산, 장시간 근로 및 육아·가사노동, 가족 돌봄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어 사용이 서툴고, 공장과 집을 오가는 상황에서 한국인과의 교류가 극도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제한된 정보는 성장기 자녀교육의 아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노년이 어떻게 전개되리라 예측 가능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빈곤도 결혼이주여성이 맞이할 노후의 경제적 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전체 다문화가족의 50%에 이르고 있어 일반가정 17.7%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금 우리가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결혼이주여성의 노년기 빈곤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남편과의 연령 차이도 여유로운 노후생활의 장애요인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의 연령차가 평균 10세를 넘고 있다.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

보다 높음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수입이 조기에 단절된 상태에서 노년기의 상당기간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노년기가 고립상태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2012년 조사에서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의논 상대가 아무도 없다’는 응답자가 21.7%에 달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역주민과의 모임이나 참여 등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6.7%로 매우 높았다. 여기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 김순남(2014)은 결혼과 이혼과정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외부인도, 내부인도 아닌 내부적 이방인으로 타자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이혼 가정은 거의 다 반지하에 산다’는 인터뷰 내용으로 압축하여 이들의 열악한 상태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대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전체 다문화가족의 3% 정도이다. 결혼이주여성의 표면적 생활세계는 타 도시의 상황과 유사하다. 출신국적별 분포에서는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많았는데 이는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많은 전국적 상황과 차이가 있다. 대구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족계’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 시내 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우수성은 2014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에서 대구가 무더기로 S등급, A등급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원의 학력신장과 취업연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을까? 결혼이주여성들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안고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17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개별면접 또는 FGI를 병행하였는데, 개별면접은 ‘은지’씨, ‘유미’씨만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3~5명씩 모두 7회에 걸쳐 FGI로 진행되었다. 특별한 이유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인터뷰한 것은 아니다. 다만 2013년 통계자료 중 대구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에서 베트남(36.0%) 출신 결혼이주여성<sup>5)</sup>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증가폭도 다른 국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국적만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후속 연구에서 출신국적별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으로 진행되었다. 지인을 통해 ‘은지’씨를 처음 소개받은 후 ‘은지’씨의 주변 친구를 소개받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을 다시 소개받았다. 면접 장소에 어린 자녀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로 인해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식당과 커피숍을 찾아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실제로 인터뷰 날짜는 자주 바뀌었으며, 4번 이상 약속시간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취업상태인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인터뷰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도중 가끔씩 어린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1회당 2~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홍테’, ‘은우’의 인터뷰는 한 번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두 번 이상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처음 면접대상자였던 ‘은지’씨는 이후 진행된 인터뷰의 대부분을 함께 해 주었다. ‘홍테’를 제외하면 한국에 온지 8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소통이 어려운

5) 2013년 통계청 자료(<http://www.kostat.go.kr>, 2015.1.10. 인출)에 의하면 대구지역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36.0%), 중국(22.4%), 한국계 중국(20.2%), 필리핀(5.6%), 캄보디아(5.0%) 순으로 나타났다.

경우에는 ‘은지’씨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대상자의 입국년도는 2007년 입국자가 6명으로 가장 많고, 2006년 5명, 2005년 이전 입국자도 5명이다. ‘홍테’를 제외하고, 8년 이상 국내 거주경험을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였다. 현재 연령은 20대 5명, 30대 12명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았으며, 학력은 초졸 4명, 중졸 8명, 고졸 4명, 대학 1명으로 중졸이 가장 많다. 취업상태별 구분에서는 전업주부 3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3명, 대구 외곽의 성서공단에서 근무하는 여성 10명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는 여성 1명으로 성서공단 근무자가 가장 많다. 현재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은 3명이며, 가출경험이 있는 여성도 1명이다. 자녀수는 첫째를 임신한 ‘홍테’외에, 9명은 한 명의 자녀, 6명은 두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셋째를 임신 중이다. 그리고 현재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1명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모두 초혼이었으며 남편과의 나이 차는 8~15년 사이에 걸쳐 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11명의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친정가족(어머니, 아버지, 언니, 여동생, 오빠, 남동생, 삼촌 등)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친정방문은 결혼 초기 1~2회가 대부분이며, 최근 3년 이내 친정방문자는 아무도 없었다. 친정방문이 어려운 이유는 한결같이 경제적 문제라 대답하였다. 결혼 후 장거리 남편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은 드문 상황으로 나타났다. 주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아이와 함께 참석하였다. 하나의 예로 제주도를 여행한 경험자는 2명이었으나 1명은 직장에서 통역으로 다녀왔기에 순수한 여행의 목적은 1명에 불과하였다.

남편이 재혼인 경우는 ‘은지’씨 혼자이며, 통·번역사로 일하는 ‘녹향’과 ‘유미’는 현재 지역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혼한 상태인 3명의 여성들은 모두 자녀를 맡아 양육하고 있으며, 전남편으로부터는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그 중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였다는 ‘티폼’씨는 아들을 베트남의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있었다. ‘티폼’씨는 110만원 정도(잔업을 많이 할 경우 150만원 정도)의 월급에서 매월 절반 정도를 베트남에 송금한다고 하였다. ‘은지’씨와 ‘티폼’씨는 친자매간이며, ‘은정’씨와 ‘소영’씨도 언니와 동생이 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한다고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이름 (가명)	입국 년도	연령	본국 학력	취업상태	주택 소유	자녀 수	비 고
1	은지	2003	35	중졸	전업주부	○	1명(9세)	월2회 YWCA 출강, 남편·전처 사이 2명 자녀
2	미숙	2003	33	초졸	성서공단(컴퓨터 자수)	○	3명(8,4세)	
3	민희	2004	33	중졸	성서공단(자동차 부품)	×	2명(10,7세)	이혼상태, 자녀 양육, 모국 남편과 재혼, 임신 중
4	녹향	2004	31	고졸	다문화센터 통·번역사	○	1명(10세)	국내 대학 재학 중
5	은정	2005	32	초졸	성서공단(자동차 부품)	×	1명(9세)	여동생 한국인과 결혼
6	소연	2006	32	중졸	성서공단(컴퓨터 자수)	×	1명(8세)	
7	지연	2006	28	중졸	성서공단(핸드폰 부품)	×	1명(8세)	
8	유정	2006	32	고졸	성서공단(컴퓨터 자수)	×	2명(8,4세)	
9	수연	2006	27	고졸	성서공단(자동차 부품)	×	1명(7세)	이혼상태, 자녀 양육
10	유미	2006	28	중졸	다문화센터 통·번역사	○	2명(8,3세)	친정어머니 동거 국내 대학 재학 중
11	혜은	2007	28	고졸	다문화센터 통·번역사	×	2명(6,4세)	
12	은우	2007	31	대학 2년	성서공단(자동차 부품)	×	1명(6세)	친정어머니 동거
13	로우	2007	31	중졸	전업주부	○	2명(6,4세)	시부 병간호, 요양보호사
14	소영	2007	32	초졸	재래시장 내 야채장사	○	2명(7,4세)	가출경험, 언니 한국인과 결혼
15	녹이	2007	32	초졸	성서공단(자동차 부품)	×	1명(7세)	
16	티품	2007	38	중졸	성서공단(핸드폰 부품)	×	1명(7세)	이혼상태, 자녀 모국 거주
17	홍테	2010	25	중졸	전업주부	×	-	임신 중

면접대상자 중에서 ‘민희’씨의 사례는 조금 낯설어 소개하고자 한다. ‘민희’씨는 2003년 베트남에서 13살 많은 한국남자와 맞선을 보고 결혼한 후 2004년도에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한국남편과의 사이에 10살과 7살의 아들이 있고, 2011년 이혼하였다. 아이는 ‘민희’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비



명목으로 아이 아빠로부터 부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2013년 ‘민희’씨는 국내 근로자로 일하는 베트남의 남성과 약혼하였으며 현재 임신 중이다. 약혼한 남편은 현재 베트남으로 돌아가 ‘민희’씨와의 국제결혼 절차를 밟고 있다. ‘민희’씨는 “남편은 아직 베트남에 있어요. 한국에 오기 위해 서류준비하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였다. ‘민희’씨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임신한 몸으로 공단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지금 ‘민희’씨의 소망은 출산 전에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것만이 ‘다섯 식구’가 살아갈 희망이라 하였다. ‘민희’씨의 안타까운 형편에서 노후준비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힘들었다.

## 2. 연구방법

결혼이주여성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는 단순하면서도 절박한 희망을 안고 국내로 이주하여 한국남성의 아내로, 한국아이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들이 꿈을 펼치기에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절망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다. 개인적 자원과 욕구가 경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기대하는 노년의 삶은 어떠한지, 그러한 노년의 삶을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기대하는 노년의 삶과 노후준비는 서로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경제가 어떠한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결혼의 매개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한 여성들은 노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따라가고자 한다. 이는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을 불러와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장에서 관계적 과정을 탐색하기 유리한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가치중립성보다는 의미를 따라가는 방법이다.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에 대한 내용을 구술로 증언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보이는 몸짓과 표정 등을 통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윤택림·함한희(2006)가 주장한 주관적일수록 가치가 있다는 역설이 성립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장점에 동의한다. 그것은 화자가 어떤 사건을 포착하고 배제하는지를 연구자가 간파함으로써 화자의 삶을 좀 더 깊이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 녹취 동의를 얻은 후 진행되었다. 녹취를 흔쾌히 받아들였으며, 대부분은 실명 공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증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몇몇은 ‘남편하고 상관없지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는 개인의 신분이 공식화되는 것에 따른 두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가명 처리하여 보호하였다.

#### IV.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설계

##### 1.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결혼이주, 그리고 지금

17명의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3명을 제외한 1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현재 취업상태에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취업상태인 3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임신 중인 ‘홍테’를 제외한 2명도 전업주부라 단정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은지’씨는 월 2회 다문화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로우’씨는 요양보호사로 가정에서 시부모 병간호를 맡고 있어 이들은 적게나마 매월 공식적인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회사 다녀서 통장을 갖고 있어요. 컴퓨터 자수 일을 합니다.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해요. 애들 과자 사 주고, 내 옷도 사고, 반찬도 사고 …… 힘들다고 하면 남편이 자꾸 (일을) 그만 해라 해요.”(유정)

“월급 받아서 주로 쇼핑도 하고,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고, 애들 필요한 것 사 주고 생활비에 보태요. 나도 좀 쓰고 …… 지금 이 일이 좋아요.

일한 만큼 돈을 받아요. 집에 일이 있고, 회사가 안 바쁘면 (회사에)이야기하고 출근 안 해도 되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무조건 일 해요.”(지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3명과 재래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는 ‘소영’씨를 제외한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은 성서공단에 취업한 상태이다. 이들 공단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 일용직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 영세소기업의 근로환경은 열악한 수준으로 성별 임금차이, 단순노무, 임금체불, 잦은 이직의 노동구조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랜 불경기 탓에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일감도 크게 줄어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쉬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이혼상태인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동안 다른 직장을 찾을 수도 없기에 숙수무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는 잔업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비정규 일용직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집안 일이 있거나 아이가 아플 때는 회사 사정을 봐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기혼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결혼생활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결혼이주여성이 가정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는 심리로 표출된다.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생존전략의 방편으로 언제든지 일을 포기하면서 순응하고 있다. 일과 수입에 대한 욕망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중부담과 고충을 엿볼 수 있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하고 남편 통장은 남편이 쓰고 있어요. 남편한테 생활비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 교육비하고, 필요한 것 사 주면 항상 모자라요.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 돈도 생활비에 많이 쓰는데, 남편은 그것 몰라요.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다(베트남에 돈 보내고) 쓰는 줄 알아요. 그런데 보낼 돈이 없어요. 여기(한국)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많이 벌지도 못하니까. 가끔씩 보내요. (베트남에 송금하지 못해서)매일 미안해요. 생활비도 모자라니까요. 한국은 살기 힘들어요.”(소연)

“남편하고 나하고 돈을 따로 써요. 전에는 남편이 생활비를 줬는데, 지금은 내가 일한다고 남편이 돈을 안 줘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 줄 때도 있어요. 남편도 돈 많이 못 벌어요. 내 돈으로 생활비로 써요. 매일 모자라요. …… 그래도 내가 돈 벌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혜은)

이주여성인권을 지원하는 활동가가 어느 날 연구자에게 한 말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왜 미국이나 유럽 가서 살고 싶어 할까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이주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잘 살아 보려고 오는 거죠.’ 여성들은 결혼이주로 ‘잘 살고’ 싶은 욕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로 이주한 지 10년이 경과한 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잘 살고’ 싶은 욕망을 채우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열악한 가정경제와 결혼이주여성의 부족한 취업자원은 이주 전에 가졌던 기대가 여전히 기대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상황에서 ‘잘 살고’ 싶은 이들의 기대가 노년에는 어떠한지 걱정스럽다.

대구에서는 2006년경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통장 만들기’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저축의 종류와 가계부 쓰기, 신용사회 살아가기 등의 실생활 경제교육도 진행되었다. 그 후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개인통장 소유와 원활한 금융거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면접대상 결혼이주여성 17명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을 갖고 있었으며,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였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였고, 현금사용이 가장 많았다. 쇼핑은 주로 시장과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수입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출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사용처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장보기, 아이용품 구입 등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어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수입은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계유지에 결혼이주여성의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가계 동반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일을 가게 보조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법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정안에서의 젠더권력 관계를 엿볼 수 있기에 충분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약성을 담보한 불평등한 부부관계는 결혼이주여성 스스로를 위축시키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보다는 ‘항상’ 가정이 우선인 삶을 살게 만들게 한다. 이 같은 삶은 일자리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분한 한국어학습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직업에 만족해하는 것이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는 각종 보장과 연금 등의 혜택으로 노후준비에 유리하다. 이처럼 한국사회 가부장성에 근거한 가정 내 젠더권력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선택과 경제적 지위 및 노후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보다 우려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이러한 상황이 모든 여성을 불규칙적인 노동과 저임금 구조로 몰아가 노동현장의 성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립적이고 주체적이며 평등한 여성으로 인식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을 둘러싼 가정환경, 노동환경이 좀 더 평등해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은 이미 가게 보조자가 아닌 가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나도 돈을 벌어요. 내가 번 돈은 내가 다 쓰고 있어요. 남편이 내가 번 것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했어요. 주로 딸 옷 사는데 쓰고, 나도 좀 쓰고 베트남에도 보내요. 엄마가 새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지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돈을 병원비로 썼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내가 돈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해요. 남편이 생활비를 조금만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항상 모자라요. 여기(한국) 오기 전에는 한국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모두 잘 살고, …… 부자도 많은데,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요. 그래야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보낼 수 있어요.”(은정)

“나는 아들이 엄마(베트남)한테 있어서 돈을 보내야 해요. 여름에는 회사가 일이 없어서 놀아요. 그럴 때는 다른 일을 또 해야 하는데 없어요. 돈을 안 보내면 아들이 공부 못해요. 빨리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가야 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 애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거는 힘들어요.”(티폼)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은정’씨는 결혼 후 지금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친정에 송금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좌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삶의 경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동기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상황을 일반화시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결혼 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해 이루려는 삶에서 여성들이 가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빈곤이 가속화되면서 가난을 탈출하려는 개별 가구가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딸들의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가족을 중시하는 베트남 여성의 자기희생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베트남 여성은 국제결혼의 성공신화에 대한 동경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꾸려는 행위에 덧붙여 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은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결혼이주여성도 결혼 초기에 정기적으로 친정에 송금한 경험을 모두 갖고 있었다. 정기적인 송금이 불가능한 현실로 인해 한결같이 고향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부모님의 생신, 명절 등 특정한 날에 비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었다. 이들의 행위는 한국여성들이 특별한 날에 친정부모에게 용돈을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여성들이 효와 의무의 경계에서 용돈을 드리는 것과 같이 결혼이주여성도 효와 의무의 차원에서 이들의 송금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잘 사는 먼 나라’로 결혼 이주하였기에 딸에 대한 더 큰 기대와 부모에 대한 더 큰 의무가 상존하는 것이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보내고 싶지만,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은 이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티폼’씨도 매월 송금하고 있었으나 ‘티폼’씨는 베트남에 있는 자녀 양육비를 대신하는 것이기에 친정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티폼’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한 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이 불가능하여 아이를 베트남에 보낸 상태이다. 전 남편의 폭력은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티폼’씨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 남자가 무섭다는 ‘티폼’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하였다. ‘은지’씨와 ‘티폼’씨의 부모는 두 딸을 한국으로 시집보낸 후 좋아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티폼’씨의 평탄하지 않은 결혼생활로 한숨이 늘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텔레비전 보면 한국이 너무 너무 좋아요. 남자들 너무 멋있고, 집도 너무 좋고, 좋은 곳에서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 그런데 와 보면 진~짜로 아니에요. 후회 많이 되죠.”(지연)

국제결혼은 여성이 이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부국의 남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근대적 소비와 낭만적 사랑에 대한 욕망을 갖고, 성공의 증표로서, 좋은 결혼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이주를 감행한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한국의 결혼생활은 다양한 이유에서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시부모의 통제, 자녀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궁핍, 가사부담 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실망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 월급하고 남편 월급하고 모두 내가 관리해요. 남편은 살림살이를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한테는 내가 용돈을 줘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해서 생활이 어려워요. 내 월급이 적지만 벌지 않으면 안돼요. 그리고 나는 계속 일 하고 싶어요.”(유미)

‘유미’씨는 조사대상자 17명 중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급여 통장을 관리하면서 가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미’씨는 인터넷 बैं킹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교육비 지출, 생활비, 저축, 남편의 용돈 등 모든 가계 지출을 맡고 있었다. 함께 참석한 결혼이주 여성은 ‘유미’씨를 보며 “너는 그래도 성공 했어”라는 말로 부러워하였고, ‘유미’씨도 “이러고 살면 더 힘들어”라고 말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유미’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보면서 이들이 기대하는 한국사회에서의 삶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평범한 기혼여성의 삶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기혼여성의 삶이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성공적인 삶이될 수 있다는 것에서 결혼생활의 고달픔을 잊볼 수 있고, 우리사회의 가부장성이 이들에게 더욱 가혹함을 짐작할 수 있다.

‘유미’씨에게 내 집 마련은 노후준비의 한 가지 방법이다. 결혼이주여성 은 ‘집’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했으며, 집이 있으면 부자라는 생각이 지배 적이었다. 그래서인지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해 주고 싶은 것에서 ‘새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주친구들이 말한 ‘성공’한 ‘유미’씨는 현재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로 지역 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유미’씨는 본인의 학업과 직장생활 그리고 자녀양육이 힘들어 친정엄마를 초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

## 2. 준비 없는 노후, 예견되는 결혼이주여성노인의 빈곤화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만큼 노년기가 길어짐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하지만 긴 노년의 여유 있는 삶은 미리 계획하고 대비할 때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재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여건이 매우 심각하다는 각종 지표는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젊은층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임완섭(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빈곤에 더 취약하다. 장미혜 외(2013)도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여성 내부에서도 교육수준이 낮고 무배우인



여성노인일수록 빈곤에 더 취약하고, 학력 및 건강상태 등이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직업이나 직업의 안정성, 가족 내 복지 등도 빈곤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가구소득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고, 저소득 직업에 종사하고, 남편과의 연령차가 크고, 건강이 우려되고,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노년빈곤은 어떠할까? 노년빈곤이 예측되는 결혼이주여성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을까?

“저축하고 있지 않아요. 저축할 돈이 없어요. 월급 타서 애들 필요한 것 사 주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 늙어서는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냥 나이 들면 좀 편하게 놀러 다니고, 돈 좀 모아 베트남 가서 집 짓고 살든지 …… 우리 회사도 나이 많은 사람은 못 나오게 하는데, 나도 늙으면 무슨 일을 해서 돈 벌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저금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미숙)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까하는 생각은 지금은 전혀 없어요. 지금 사는 것도 어려워요. 한 달에 10만원 저금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 쓰던가, 친정에 일이 있으면 조금 보내려고 해요. 연금 같은 거는 잘 몰라요. 늙으면 ……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잘 살 거예요.”(소연)

“노후를 위해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남편도 죽고, 나도 늙으면 베트남 가서 예쁜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 그러면 저금을 해야 하는데 돈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 늙으면 어떻게 되겠죠. 애들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생각할 거예요.”(은우)

“저는 암 보험 들어가고 있어요. 연금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한국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금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래도 돈을 조금 모았어요. 내 돈이 500만원 있어요. …… 늙으면 아이가 돌봐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시키잖아요.”(녹향)

결혼이주여성이 그리는 노년의 삶은 힘든 일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여행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예쁜 집’ 짓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는 충분한 준비가 뒤따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게서 노후준비를 찾아볼 수 없었다. ‘미숙’씨, ‘소연’씨, ‘은우’씨 뿐만 아니라 누구도 노년을 대비하여 뭔가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하물며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왜 노후준비가 필요한지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운 가정경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변화하는 가족관계, 긴 노년을 대비한 생활설계 등에 대한 기회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음도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노년빈곤은 이들이 가진 자원의 한계로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30대이고, 아직은 한국사회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녀 양육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노년을 계획하고 준비할 것이란 기대가 성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면접 내내 결혼이주여성 중 어느 누구도 노년기 삶, 노후생활에 대해 그렷보거나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 남편과의 연령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고려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노후대비가 결코 빠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최근 20~30대 젊은층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연금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sup>6)</sup>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20대 연금보험 고객비중이 33%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 25%에 비해 8%p 상승하였다. 또한 연령별 연금 가입비중도 과거에는 40대가 가장 높았으나 지금은 30대, 20대, 40대 순으로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상공회의소(2006)의 자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서울지역 근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sup>7)</sup>에서 연령별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67.2%), 30대(55.0%), 20대(38.5%)의 순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6) 세계일보(2014.12.8.), 아시아경제·공공뉴스·파이낸셜뉴스·프라임경제·한국경제·연합뉴스(2015.2.13.), 중앙일보(2015.2.14.), 이코노믹리뷰·머니투데이(2015.2.19.)

7)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06.8.8.),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http://www.korcham.net>

는 결과를 얻었다. 노후준비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노년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결혼이주여성은 오히려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사회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 노인의 빈곤은 멀지않은 시간 내에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몫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은 자녀세대로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비 지출 증가 및 사회적 갈등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면접대상 결혼이주여성의 절반가량이 고향 베트남으로 되돌아가 노년의 삶을 보내려는 희망을 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으로 뚜렷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우리사회의 이방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도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고민된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실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아이의 어머니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여성’이다. 우리사회가 이들을 영구적인 주변부 계급으로 고착화시키는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볼 지점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노년기 삶을 지탱할 경제지원에 있어 자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한국적 현상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자녀와 부모의 돌봄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자녀에게 노년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와 가족의 변화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자녀에 기대하기보다 주체적인 자립의지를 키워야 할 것이다. 한 칼럼(조선닷컴, 2015.4.27)에서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독립만이 노후대비의 해답이 될 것이라는 논의에 공감한다.

“노후생활이나 준비하라는 그런 교육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후생활에 대해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는

면 이야기에요.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노후까지 생각할 수 없어요.”  
(유정)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거나 저축이나 연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노후생활 설계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두 연금(국가의 지원 부분임) 받잖아요.”(녹향)

“노후준비가 왜 필요한데요? 나라에서 도와줄 거잖아요”(로우)

박성정 외(2014)는 40~60대 중·고령 여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현황 등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97.0%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8.0%가 배우자에 의존하기보다 여성 스스로 역량강화를 통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높은 자립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자립의지에 비해 여성들의 노후준비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았는데 정책차원에서 여성들에게 노후준비와 설계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노인빈곤이 문제시 되고 여성의 노후준비가 남성에 비해 부족한 현실은 향후 여성의 노년기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노인의 빈곤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여, 성 인지적인 연금정책과 여성 재무 설계 등의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여성의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였고,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2014년에는 전국 권역별로 확대하였다. 노후생활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여유로운 노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건강성과 양호한 재무 상태이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여가자원 활용을 고려한 노후생활이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재무 상태도 열악하고, 식습관의 차이로 인해 건강도 경고등<sup>8)</sup>이 켜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도 활발하지

않다. 김영경·이정향(2014)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이거나 타 이주민 친구들과 어느 정도의 연결망은 형성하고 있으나 자국민 중심의 폐쇄적 연결망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한국사회에서 고립의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삶을 종합하여 노후생활을 예측해 본다면 사실 부담하기 짝이 없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노후준비가 더욱 필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인적·물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 여성은 노후준비는 물론이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노후설계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기회조차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이주 여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스스로 노년을 대비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사정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의 노년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결혼이주여성노인의 빈곤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 그때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V. 마무리

###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미래생활설계

얼마 전 뉴스<sup>9)</sup>를 통해 2015년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수명이 무려 142세로 예측된다는 내용을 접했다. 뉴스는 기대와 희망, 충격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 주었다. 인간의 수명이 빠른 속도로 연장되는 것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여유로운 노년은 모두의 희망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복지안전망이 부족한 우리사회는 개인 의존성이 강하다. 이 경우 자본의 유무에 따라 개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의 노년을 예측할 수 있다.

8) 여성신문(2015.1.20.일자). <http://www.womennews.co.kr/news>, “결혼이민여성 ‘여성건강’ 경고등”.

9) SBS뉴스(2015.2.23.). ‘올해 태어난 신생아, 142세까지 살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가부장적 가족체계와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성 차별 그리고 계급적으로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저임금 노동은 한국사회의 여성빈곤을 심화시키거나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노인은 빈곤에 이중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노년은 어떠할까? 여성 내부에서도 또다시 소외집단으로 구분되는 결혼이주여성은 이중삼중의 빈곤에 노출되어 더욱 취약하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로 인해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언어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전문기술도 없고, 학력도 낮고, 남편과의 나이 차도 크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노년은 과연 안전할까? 이들에게서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까? 40대 이상이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60.6%<sup>10)</sup>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이들에게 노후준비를 일임한 채 수수방관해도 괜찮은 걸까?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후준비를 독려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연구는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성 내부의 취약집단으로 구분되는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실태가 어떠한지, 노후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연구를 위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으며,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 빈곤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걱정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irony)하게도 여유로운 노년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았다. 노년빈곤을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노년을 자녀와 국가에 기대하고 있음은 실로 위험하다. 국가의 복지안전망을

10) 2012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분포에서 만 20세 미만 0.1%, 만20~29세 7.9%, 만30~39세 31.4%, 만40~49세 29.9%, 만50~59세 20.8%, 만 60세 이상 9.9%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2.26.).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모 부양’을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 간의 돌봄 책임과 돌봄 기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생활이 어렵고, 여유가 없기에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고 실천할 것이라 기대한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여성노인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결혼기간과 남편과의 연령차를 생각한다면 긴 노년을 대비하여 한 번쯤은 노년을 고민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노후대비, 고령화시대 대비에 대한 보도에 익숙하며, 중·장년층, 젊은층 할 것 없이 확산되는 사회분위기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노년의 삶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향이기보다는 이주민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주민이 가진 한계를 알고 있기에 그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스스로의 미래생활설계가 가능하도록 자립의지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우리사회의 몫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의 노년을 고려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여성빈곤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여성들이 결혼을 매개로 꿈과 희망을 안고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들은 동질적이지 않음에서 오는 차별과 외로움을 견디며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팍팍한 환경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최선의 삶을 살아낸 결혼이주여성의 노년도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운명이다. 이 연구는 면접대상자의 지역적·직업적·출신국가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켜 설명하기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성노인 중에서도 빈곤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이주여성의 노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중 절반가량이 노년의 삶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사회가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고정갑희(2005). “여자들의 공간과 자본 : 지구화시대 한국사회의 여성적 빈곤과 공간적 대응”.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 5-37.
- 공임순(2014). “여성과 빈곤: 빈곤의 포비아(phobia), 순치되는 혁명과 깡패 /여공의 젠더 분할”. 여성문학연구. 32권. 141-187.
- 곽삼근·박성희·김은경(2008). “여성노인의 젠더 불평등 경험과 인식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4호. 141-174.
- 김수정·김정석(2011). “노인 부부가구의 빈곤: 성과 직업력의 효과”. 가족과 문화. 제23집 3호. 63-91.
- 김순남(2014). “이주여성들의 결혼,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본 삶의 불확실 성과 생애지도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30권 4호. 189-231.
- 김영경·이정향(20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 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163-175.
- 김영란(2004). “신빈곤 발생구조와 빈곤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집. 245-273.
-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 사회학. 40집 2호. 189-226.
- 김태원(2011). “한국 다문화 연구현황과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의 다문화 연구현황과 담론지형 분석. 대구카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자료집(2011.05.27.).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06.8.8.).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 매일경제(2014.3.10.). “한국 노년 여성 빈곤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http://news.mk.co.kr>에서 2015.3.8. 인출.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제24권 3호. 111-118.
- 박성정·오은진·최인희·최윤정·장희영·박영란(2014).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삶을 위한 정책과제(Ⅱ): 노후설계를 위한 역량강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영란·황정임(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정진주·황정임·권문일·김창엽·석재은·엄규숙·유태균·정인숙·황수경(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집 2호. 167-197.
- 소현숙(2014). “여성과 빈곤: 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 - 1920~30년대 여성 이혼과 빈곤문제”. 여성문학연구. 32권. 75-113.
- 손혜민(2014). “여성과 빈곤: 전후 ‘근로대중’의 형성과 빈곤의 젠더화-정비석의 「민주어족」(1954,1955)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2권. 115-140.
- 성지혜·이정미(2014). 대구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2.26.). “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의 진전”.
- 여성신문(2015.1.20.). “결혼이민여성 ‘여성건강’ 경고등”.  
<http://www.womennews.co.kr/>에서 2015.5.16. 인출.
- 여지영(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정원(2000). “한국 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제4,5,6차 대우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택림·함한희(2006).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삼식·이선희·배혜원(2013).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중요도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4-186.
- 이은아(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자녀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115-146.
- 이주미·김태완(2014).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12호. pp64-73.
- 임완섭(2015).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71호.
- 장미혜·문미경·최인희·석재은·노혜진·김혜원·정지연·양아름(2013). 여성

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닷컴(2015.4.27). “여성 老後 대비하는 ‘따로 또 같이’”.

<http://news.chosun.com>에서 2015.5.31 인출.

최기숙(2014). “여성과 빈곤: 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 여성문학연구. 32권. 7-44.

최희경(2005).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27권. 147-174.

통계청(2015.2.10.). “지자체별 외국인주민현황”, <http://www.kostat.go.kr>에서 2015.2.10. 인출.

통계청 보도자료(2014.11.19.). “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황수연(2014). “여성과 빈곤: 19세기 사족 여성의 빈곤 경험과 대처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32권. 45-74.

허미영(2006).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계기와 가족의 역할”.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235-262.

허성우(2008). “여성적 빈곤, 민주주의와 젠더 거버넌스: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4권 1호. 5-49.

SBS 뉴스(2015.2.23.). “올해 태어난 신생아, 142세까지 살 수 있다”

## Abstract

# Research on Preparation for Later Life of Married Immigrant Women

- Focused on Vietnam Married Immigrant Women in Daegu Area

Ji-Hye Sung

This study examines how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considered as a vulnerable group among groups of women prepare for their old ages and what their expectations are on aged life as a poverty of elderly women are being concerned in a modern society. For this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on 17 Vietnam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Daegu, Korea.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they have completely no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s and even their awareness for necessity of preparation for it was very low; however, ironically, they have very high expectation toward an opulent later life and have no worries about poverty in senescence.

Married immigrant women live hard lives and are not comfortable financially; therefore, it is hard for them planning for their old ages and practicing them in an orderly way. However, a serious problem is they even do not aware of necessity of preparing for it when lots of young people now prepare for their long old ages in advance in the present day. This may not their personal preferences but lack of understanding of social environment of Korea that changes rapidly; therefore, enough opportunities to get counseling and education to understand current conditions shall be provided to them. We shall keep in mind that if we do not consider old ag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near future, we shall face uncontrollable poverty problems of elderly women.

**Key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Elderly women, feminization of poverty, Preparation for later life, Plan for later years

